

부동산개발자금(PF) 대출 전문은행
동양저축은행
 [082]228-0180

VIP 30% 할부카드, 영수증 www.dhbank.com
생존년의 연인,
엄마랑이 빛이됩니다.
 대표강사 권오경, 임영희
 광주지나 062]228-3222

光州日報와 함께 행복한 주말을

Weather
 광주·전남 휴일 날씨
 13(土) 14(日)
 흐리고 비온뒤 맑음 12 / 19℃ 구름조금 9 / 22℃

News

- 與野 광주시 지방선거 '출발' ②
- 인터넷서 다지는 '사제의 정' ③

Jeollado ⑦

- 풍수-새로운 시대의 해남

Entertainment

- '불꽃놀이' 출연 한채영 ⑧



- '한반도' 촬영 마친 강우석 ⑨

Books

- 선비들의 교제 미학 '간찰' ⑩
- 통일 독일을 말한다 ⑪

Wellbeing

- 식품 탐구-오이 ⑬



- 골프 실전 클리닉 ⑱

“상품에 빨간색을 입혀라”

■ 독일 월드컵 D-27 '레드 마케팅' 열풍

“2006 독일 월드컵”을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상징인 붉은 색을 이용한 ‘레드(Red) 마케팅’ 열풍이 거세다. 특히 유통업계에서 시작된 레드 마케팅이 독일 월드컵이 코앞으로 다가오자 먹거리 등 사회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월드컵을 겨냥한 레드 마케팅 열풍이 가장 거세게 부는 곳은 패션업계다. 의류업체마다 붉은색 월드컵 티셔츠를 경쟁적으로 내놓는 가 하면 색상을 소화하기 힘들어 그동안 인기를 얻지 못했던 빨간색 구두와 붉은 계통



2006 독일 월드컵 개막이 다가오면서 패션과 유통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상징인 붉은 색을 이용한 ‘레드 마케팅’ 열풍이 거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들이 한달에 3천대 이상이 팔려나가는 등 대박을 터뜨리고 있다. 냉장고와 에어컨도 예전의 흰색이나 회색계통이 뒤로 밀리고 고급스런 느낌을 주는 와인색 등 붉은계통이 백화점 등 가전매장의 앞줄을 점령했다. 레드 마케팅이 먹거리까지 확산되면서 최근에는 과일 뿐만 아니라 와인·커피 등이 들어간 음료수와 빵, 아이스크림이 등장하는

등 레드 푸드의 품목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같은 레드 마케팅 열풍을 이용해 지역 유통업체도 붉은색을 월드컵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빅마트는 지난 9일부터 11일까지 14개 전점포 이용 고객들을 대상으로 3명을 추첨해 한국과 프랑스전 입장권과 항공권, 숙박비 등 3박4일간의 경비를 제공했다.

광주시세계도 PDP와 LCD 구매고객에게 추첨을 통해 프랑스 보르도 5박6일 여행권과 한국팀 경기의 스코어를 맞추는 이벤트를 벌

유통업계 경품행사도 ‘풍성’

여 예산 3개월을 모두 맞춘 1등에게는 BMW 승용차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할 예정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월드컵 기간동안 특보상품전을 마련, 40~60% 특별 할인된 가격에 스포츠 용품을 판매하고 한국팀의 16강 진출시 선착순 50% 할인행사도 벌일 계획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이장호 과장은 “올 봄부터 불기 시작한 레드 마케팅 열풍과 월드컵 마케팅이 잘 맞아 떨어져 매출 신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성체줄기세포로 개 척추 손상 치료 서울대 권오경 교수팀

성체줄기세포로 개의 척추 손상을 치료하는 실험이 국내에서 성공했다.

서울대 수의대 권오경 교수팀은 척추 골절로 뒷다리가 마비돼 보행 이상(후구마비)을 겪고 있는 4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마비된 부위에 제대줄기세포를 이식한 결과, 3마리 중 3마리에서 감각신경이 돌아오는 등 호전 반응이 관찰됐다고 12일 밝혔다.

연구팀에 따르면 이번 실험에는 제대줄기세포를 통해 얻어진 다른 개의 제대줄기세포가 주입됐다. 실험에 사용된 척추손상 개는 모두 6개월 이상 뒷다리가 마비된 상태였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이들 척추손상 개에게 줄기세포를 이식한 뒤 4개월 이상 경과를 관찰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성과를 척추 손상 환자에게도 임상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바이오기업인 알앤엘바이오는 연구성과의 상업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패션에서 가진까지 ‘레드’

의 립스틱 매출이 예전에 비해 30~40% 가량 급증하고 있다.

“붉은 악마”의 공식 응원복을 생산·판매하는 베이직하우스는 붉은 악마의 2006년 슬로건인 ‘REDS, GO TOGETHER’가 가슴에 새겨진 응원용 티셔츠를 판매하고 있다. FNC코오롱도 ‘Color your life’ 슬로건을 응용한 붉은색 티셔츠를 선보이고 있다.

백색위주였던 가전업계도 붉은색이 단연 강세를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출시한 빨간색 노트북인 ‘센스 Q30’은 울

與 광주시장 후보 14일 판가름

김재균 후보 단식농성 반발

열린우리당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가 오는 14일 최종 판가름난다.

열린우리당은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광주시장 후보 경선 문제를 논의한 결과 오는 14일 오전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후보 선정에 대한 최종 결론을 도출한 뒤 곧바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의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이 전원 참석, ‘김재균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언론에 여론조사 방법 등을 공표함에 따라, 공정한 경선이 무산됐다’며 후보 자격 박탈을 주장했다.

정동영 의장을 비롯 조배숙 의원, 김한길 원내대표 등 대부분의 최고위원들은 ‘여론조사 무산은 김재균

예비후보에 귀책 사유가 있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김근태 최고위원은 ‘여론조사 경선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4일 열리는 공천심사위원회는 여론조사 경선은 시간문제 등으로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감안, 김 예비후보의 자격 박탈 여부 및 조영택 예비후보의 전략공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균 예비후보는 이에 강하게 반발, 시장 당직자 및 후보들과 함께 12일 오후부터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앙당 결정은 조 후보를 전략공천하겠다는 의도”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여론조사를 조속히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검찰 “맞춤형 줄기세포 없었다” 최종수사 결과 발표

황우석씨 연구비 28억 횡령

황우석 박사팀의 줄기세포 관련 연구는 김선중 연구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줄기세포 섞어심기’와 황 박사 진두지휘한 ‘논문 조작’이 결합한 사기극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는 김선중 연구원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훔쳐 황 박사팀의 줄기세포 배양용기에 섞어넣기를 했을 뿐 처음부터 없었다고 확인됐다.

또 황 박사는 줄기세포 논문 조작을 통해 민간기업에서 연구비 20억 원을 지원받았을 뿐 아니라 정부지원금 1억 9천266만원과 민간 연구비 6억 4천2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기사 2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업무상 횡령, 생명윤리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 황 박사를 불구속 기소하는 등 모두 6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황 박사와 함께 기소된 김선중 연구원에게는 업무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가, 이병천·강성근·윤현수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성일 미즈

메디병원 이사장과 박기영 전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황 박사는 2004년 1월 미국 피츠버그대학 제럴드 세튼 교수의 연구실에서 한국에서 가져간 1번 줄기세포(NT-1) 관련 사진의 해상도가 좋지 않아 박종혁 연구원에 병천·강성근·윤현수 교수에게는 사기 혐의가 각각 적용됐다. 이들과 함께 수사선상에 올랐던 노성일 미즈

을 게재하는 등 논문을 조작했다. 황 박사는 2004년 11월부터 2005년 2월 사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정부지원 연구비 1억9천266만원과 산업연관연구원의 연구비 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김선중 연구원은 2004년 10월부터 이듬해 4월 사이 미즈메디병원의 수정란 줄기세포를 몰래 가져와 서울대 줄기세포 2~14번 배양용기에 섞어심기해 황 박사팀의 연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51회 호남예술제 미술·작문·논술 공모
 접수기간 : 4월 25일 ~ 5월 25일까지
 ▶홈페이지: www.kwangju.co.kr ▶문의: (062)220-0541, 222-8111

후원기관: 남부대학교
남부대학교
 http://www.nabuniv.ac.kr
 ▶문의: 062-970-4114 ▶팩스: 062-970-4114
 세계의 창시자는 대학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ac.kr
 ▶문의: 062-9521-5021 ▶팩스: 062-950-5000

통아병원
통아병원이 증축으로 더 쾌적하게 - 맞춤형 의료서비스로 더 새롭게 탄생합니다
 통아병원 증축 공구 기공식
 5월 13일(토) 오후 2시 30분 개최
 통아병원 062-650-2500